

2012 문화계 결산

④ 문화행정

행복한 책임기

김형경의 '꽃 피는 고래' <참비 권>

상실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끄는 안내견 같은 것이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지기 힘든 절망을 빠지기 마련이다. 배우자의 사랑이 주는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보다도 크며 아무 까닭 없이 배우자의 뒤를 따르게 되기도 한다.

어느 인디언 노인의 지혜를 들려주는 책 '보키니'에 따르면 절망의 감정을 향해 치달다보면 삶 자체가 절망적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절망의 감정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지 버나드 쇼는 "희망을 품지 않은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양계초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주고 문명인을

하다. 그 '고래'는 열일곱살의 니은이에게도 살고 있고 장포수 할아버지에게도 살고 있으며 대왕고래집 할머니에게도 살고 있다. 니은이의 '고래'는 부모의 죽음이고 장포수 할아버지의 '고래'는 이십여 년이 지났어도 고래잡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대왕고래집 할머니의 '고래'는 한순간에 할머니 곁을 떠나간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이다.

이들이 사는 처용포는 신화가 깃뚫힌 자리이며 니은이 아빠의 유토피아가 사라진 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래가 사라지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나무가 죽고 새들



'상실'을 애도하는 법

야만기가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문명의 인간만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을 넘어서 이상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 호퍼는 "미래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잃는 그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재구성하려 들게 된다."고 말했다.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두가 상실로 인한 절망에 빠져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한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나 절망 모두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며 절망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희망이라는 이야기다.

'꽃 피는 고래'의 '고래'는 이 시대 '상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라진 신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며 잃어버린 추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민간영역까지 사업 확장... 문화재단 '권력화' 비판

출범 2년을 맞은 광주문화재단에게 올해는 혹독한 한해였다. 지난해의 경우 출범 첫해라는 상황을 감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데 반해 올해는 '쓰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광주시의 문화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재단에 무작정 사업을 떠넘긴 후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60여개 프로젝트 진행... 기금 확보는 미흡 시, 무작정 사업 떠넘기기 책임전가 '눈살'

▲문화비우처 발급률 1위 성과 올해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253억 원이었다. 이중 인건비 36억7000만원과 적립금 82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총 141억 원이었다. 이중 문화예술위원회의 광주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가 134억원, 자체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이었다. 인원은 2011년 출범 당시 25명에서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단은 2012년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문화비우처 카드 발급·이용률 2년 연속 전국 1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1위 ▲국비사업 4억 5000만원 수주 ▲페스티벌 오광주 11개 축제 8만명 관람 ▲상해·영국 에든버러와 문화교류 ▲'학교 밖 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확장 ▲'무등산 사계' 문화관광상품 발굴 ▲시민예술가 1천500명 문화나무 예술단 활동 ▲목요·토요상설공연 성공 정착 ▲문화예술지원사업 신뢰성 확보 등이 주내용이었다.

하지만 재단의 자체 평가와 별개로 지역 예술계에서는 재단에 대한 평가가 혹독하다. 일부에서는 '문화 권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영역으로 남겨둬도 좋은 부분까지 모두 관장하는 방만한 사업이다. 재단은 100만원 예산의 전시회부터 9억원에 이르는 광주세계아리랑 축제까지 위탁·자체 사업 포함, 모두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외불량에 걸렸다.

특히 아트광주는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로 수난을 당했고, 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브랜드 공연 '넘'을 위한 '행진곡' 역시 2011년 만든 '자스민 광주'에 이어 찬반 논란이 거셌다. 폴리 관리 사업 역시 1년만에 다시 비난받게 됐다. 또 시에서 재단을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시의 사업을 떠맡고 정책을 대변 '관 주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력 운영면에서는 재단이 공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데 대한 비판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무등산 사계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성신계류 탁월도'를 재현한 선비들의 여름나기 행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선임한 예술감독의 효율성 역시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가장 중요한 기금 확보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011년 출범 당시 출연금은 80억원이던 현재 기금은 고작 2억원이 늘어난 82억원에 그쳤다. 광주시 출연금의 경우 의회의 반대로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으며 일반 기부액 1억원은 아트광주에 지정기탁돼 모두 소진했다.

재단은 현재 준비중인 중장기 발전 방안(5개년 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재단이 그럴 '밀그림'에 관심이 쏠려 있다.

▲광주시의 지나친 일방 통행 문제 지난 2010년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

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이 열렸었다. 이때 타 지역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게 출연 기관인 시와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였다.

여기에 최고 결정권자의 지나친 '의지'가 프로젝트의 본질마저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 문제가 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싸고 공연을 미리 심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까지 언급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한편 광주시는 일단 광주아트광주와 아리랑축전 개최 문제 등 다양한 사업과 진행 여부와 업무 조정 등을 논의할 정례회의를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다.

<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협력·특성화 사업설명회 전남문화예술재단 27~28일

전남문화예술재단은 2013년 지역협력형 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명회를 27~28일 오후 2시 순천대 인문예술대학 1층 104호 강의실과 전남도립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역협력형사업은 총 19억7700만원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지역특성화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진흥된다. 또 남도 문화예술 특성화 기획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 소재를 활용한 기획사업도 공모한다. 문의 061-280-58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쉬움 털고 희망을 기원합니다

우제길 미술관, 오늘부터 '잊고? 잊고전'

송구영신(送舊迎新). 지난 한 해 이 루지 못한 소망 등 가슴 한편에 남아 있는 미련일랑 털어버리고 희망찬 한 해를 설계해보는 시기다. 미술관이라고 예외일까.

우제길미술관이 2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여는 '잊고? 잊고전'은 이른바 '송구영신' 전시다.

전시관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 각오를 녹여낸 작품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한희원·권승찬·진시영·박선주 등 참여하는 작가 만 75명에 이른다. A4 크기 수준의 소

품 위주 작품들이 적지 않아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하는데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

물론 문턱 높은 갤러리, 미술평론가, 전문가 등이 모인 엄숙하고 난해한 '그들만의 전시'도 아니다.

작가들과 친구들, 관람객들이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작품 감상을 하는 자리다.

문의한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편안한 마음으로 송년 파티를 즐기며 풍성한 예술 세계를 만끽하면 된다.



박선주 작 '휴식'

작가들과의 편한 만남 뿐 아니라 난해한 현대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무궁화호/무박 2일</p> 	<p>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p> <p>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p> <p>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p> <p>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석탄박물관/하이원 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p>정동진 일출 추암 추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 탑승 기차여행</p> <p>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p> <p>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p> <p>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	---	--	---

소파 식탁 거실장 기획전 각 50조 한정! NAVER 흥스페이스 www.hong79.com 다음달 30일까지

<p>06대리식 4인식탁 세트 130 → 95만원</p>	<p>월넛 안전유리 4인식탁 세트 130 → 95만원</p>	<p>4인 가능소파 방석 4개 니움 230 → 195만원</p>	<p>라운드 4인소파 230 → 195만원</p>
---------------------------------	-----------------------------------	-------------------------------------	-----------------------------

홍스페이스 이태리&모던가구 직수입 도소매 ☎1899-0240 동구청역 장동로터리 흥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